

## 다이쇼인 절: 관음당

다이쇼인 절에서 가장 큰 건물인 관음당(간논도)은 경내의 건물 중에서도 가장 볼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어두컴컴한 통로를 지나가는 ‘계단(戒壇) 순례’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이쇼인 절의 본당은 언덕 위에 위치한 조쿠간도로 관음당이 정식 본당은 아니지만, 볼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입구를 지나 정면에 보이는 불상은 머리 위에 11 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자비의 보살인 십일면관음상입니다. 십일면관음상은 본래 이쓰쿠시마 신사에서 모시는 주요 불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1868 년, 정부가 그동안 융합한 형태로 이어져 내려오던 신도(神道)와 불교의 분리를 명하면서, 불상 등을 신사에서 철거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십일면관음상은 거처를 다이쇼인 절로 옮기게 되었고, 불상을 안치하고자 새롭게 관음당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관음당은 1887 년에 발생한 화재로 소실되었고, 지금의 건물은 1932 년에 재건된 것입니다.

관음당의 왼쪽 방은 1885 년, 메이지 천황(1852~1912)의 다이쇼인 절 방문을 기념하여 조성된 곳으로, 메이지 천황이 방문할 당시 같은 장소에 천황의 숙소로서 건립되었습니다. 천황의 방문을 묘사한 그림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방(미로쿠노마)에는 정중앙에 커다란 황금 불상이 놓여 있는데, 불상은 형형색색의 화려한 장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불상은 진언종과 티베트 불교의 중심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미륵보살상으로, 2006 년에 다이쇼인 절을 방문한 달라이 라마가 봉헌했습니다. 또한 실내에 전시되어 있는 티베트의 모래 만다라를 통해, 같은 교리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밀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진언종과 티베트 불교의 밀접한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관음당 앞에는 건물 아래의 캄캄한 어둠으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계단(戒壇) 순례’를 행하는 입구입니다. 계단 순례에서 지나

가는 어두컴컴한 복도는 자비의 보살인 ‘관음’의 신체를 상징하며, 이곳을 통과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정신을 수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복도의 왼쪽 벽에는 주고쿠 지방(미야지마 섬이 속해 있는 지역)에 있는 37 개 사원의 관음상이 그려진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37 개의 그림 앞에서 기도를 올리면 총 1,500km 에 이르는 주고쿠 관음 순례를 완주하는 것과 같은 부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